

재해사례

고속도로 공사현장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고속도로 공사현장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2025년 7월 28일(오전 10시 43분경),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천공기(지반 천공 장비)의 회전부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

발생원인

- ◎ 안전거리 미확보 (회전부 접근)
 - 작업자가 천공기 회전부 근처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위험구역에 진입
 - 안전거리 확보 및 접근 통제 미흡
- ◎ 안전대 고리 걸림
 - 착용한 안전대 고리가 회전부에 걸려 기계 회전에 휘말림
 - 보호구 사용 시 위험부위 고려 부족
- ◎ 안전 방호조치 미흡
 - 회전부 보호장치(가드/덮개)가 없는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위험구역에 대한 시각적 표시나 접근 통제도 없었을 가능성 큼



<해당 상황>

재해사례

고속도로 공사현장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재해예방 대책

- ◎ 장비 안전조치 강화
 - 천공기 회전부에 안전가드 및 덮개 설치, 비상정지 장치(E-stop) 필수 배치
 - 장비 주변 위험구역 안전표지 및 접근 금지선 표시

- ◎ 작업자 안전관리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회전부 근접 금지 교육 강화
 - 안전대 및 보호구 착용 시 위험부위와 간섭되지 않도록 관리

- ◎ 현장 관리감독 체계 확립
 - 신호수 배치 및 현장 관리감독자 상시 점검
 - 작업 중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 간 신호체계 확립, 불필요한 접근 금지